

“신구 조화로 위협적인 광주FC 만들겠다”



광주FC 후아힌 캠프를 가다

태국=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광주FC의 주장 안영규가 '신구조화'로 위기의 시즌을 넘는다.

금호고 출신의 최고참 안영규는 광주를 상징하는 선수다. K리그 통산 305경기 출전에 빛나는 그는 광주에서만 191경기를 뛰면서 100·200·300경기 출장을 모두 고향팀에서 이뤘다.

2018시즌 처음 주장 역할을 맡았던 그는 성남 FC를 거쳐 광주로 복귀한 2022시즌 이정호호의 초대 주장이 됐다. 이후 3년 연속 주장 완장을 찬 안영규는 이정규 감독으로 새로 시작하는 올 시즌 다시 주장을 맡았다.

안영규는 “서로 같이 지낸 세월이 있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감독님이 별다른 안 하셨습니다”며 “앞서 주장을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부담감이 있다. 팀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잘 해야 하고, 팀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니까 부담감이 있다”고 주장 선임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위기의 팀 전면에 서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무게감 있는 부주장 신장무와 최경록은 든든한 힘이다.

안영규는 “다른 때는 내가 다 무게감을 갖고 했다면 이번에는 장무랑 경록이가 내 역할까지 해줄 것 같아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지만 안영규는 위기가 아닌 기회를 보고 있다. 당당한 신인들에게서 안영규는 희망을 보고 있다.

안영규는 “요즘 선수들은 다르다. 당돌함도 있고, 무서움 없이 하는 느낌이라 빨리 적응만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나 어릴 때는 긴장도 많이

다섯 시즌 주장 안영규 “경험과 패기로 충분히 가능”

지난해 부상 결장 아쉬움 딛고 시즌 최대 출전 의지

하고 겁먹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지난해 경기 많이 못 나섰던 선수들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아니까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신에 선수들의 패기에 베테랑들의 경험이 더해진다면 광주는 충분히 위협적인 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규는 “팀이 잘될 때는 어떻게든 잘 된다. 위기 상황이거나 안 좋을 때 경험 있는 선수들이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주면 위기를 금방 극복할 수 있다. 고참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고참들이 꽤 있다. 능력도 있고 자기 관리도 잘 하는 선수들이다”고 언급했다.

이정호 감독과 작별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즌, 이정규 감독이 공격적인 수비를 강조하는 만큼 베테랑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안영규는 “해왔던 것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만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골문을 지키는 (김)경민이도 있고, 수비라인 지키는 (민)상기, (이)민기와 그 앞에 (주)세종도 있다. 포지션별로 고참 선수들이 있다. 그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서 역할 해주고 어린 선수들과 융화가 잘 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ACL E8강, 코리아컵 결승 경험은 어린 선수들은 물론 베테랑들에게도 성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안영규는 “(알힐랄과 경기에서) 허무하고, 당황스러움 느낌보다는 감탄하면서 경기를 했다. 이래서 다 이름 있는 선수들이라는 걸 느꼈다.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올 정도였다. 분위기 자체도 너무 달랐다. 어느 경기보다 압박감이 컸다. 응원 열기에 놀린 면도 있었다”며 “한 골이라도 넣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 “K리그에서 결승을 가본 것은 처음이다.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날도 춥고, 결승전이라는 부담감에 힘도 들어가서 초반에 평소 하던 것 만큼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해봤으니까 다시 결승 가면 대처도 잘하고 자기 기량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며 또 다른 무대를 그렸다.

개인 안영규로도 올 시즌 각오는 남다르다. 안영규는 지난해 16경기 출장에 그쳤고, 수원 FC와의 최종전 부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

안영규는 “지난 시즌 아쉬움이 크다. 많은 경기 출전하지 못했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다친 게 가장 아쉽다. 새 시즌을 잘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하네 부상 당하고 시작하니까 아쉽다”며 “작년에 경기를 많이 못 나가서 힘은 비축돼 있다(웃음). 올해 그걸 다 쏟아서 해야 할 것 같다. 부상 없이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서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개인 목표를 밝혔다.

‘성장’을 이야기해 온 안영규는 올 시즌에도 발전된 모습으로 광주, 주장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모습을 보여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안영규는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잘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성실하게,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내 장점이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을 후배들이 봐주고, 따라 하면 좋겠다”며 “축구를 벗는 순간까지 성장해야 한다. 만족하면 거기까지다. 더 발전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만에 다시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게 됐는데,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 채워드릴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원팀으로 가는 게 광주의 문화라면 문화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개인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경기 이기고 성적낼 수 있도록 고참과 주장으로 팀을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최고참이자 ‘주장’ 안영규(오른쪽)가 금호고 후배이자 ‘막내’ 김은호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 1번에 맞는 역할 하겠다”

KIA 박정우, 초심·간절함으로 2026시즌 도약 준비

박찬호 등번호 계승…“찬호 형이 친 공 다 잡아낼 것”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정우가 ‘초심’과 ‘간절함’으로 2026시즌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정우의 2025시즌은 시작과 끝이 달랐다. 프로 9년 차에 처음 개막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분 좋게 시즌 출발을 했고, 5월에는 연이어 스타팅으로 나가 경합도 쏘았다.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시 결승을 멈췄던 박정우는 7월 마지막 날 그라운드 복귀 뒤 8월 22일 LG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아쉬운 주루 플레이로 팀 패배의 원치 않은 주인공이 됐던 그는 이후 팬과의 SNS 설전으로 논란을 야기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박정우는 퓨처스 경기에도 나서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했다. 시즌이 끝난 뒤 울산에서 진행된 KBO 가을리그를 통해 다시 그라운드를 밟은 그는 최근 박찬호와 함께 일본 오니카와에서 자체 캠프를 차리고 시즌 준비를 위해 이를 악물었다.

매년 박찬호와 비시즌을 보냈던 박정우는 각별했던 선배가 FA로 이적하면서 이번에는 두산 오명진, 박지훈, 안재석 등과 함께 훈련했다.

박정우는 “친분은 없고 경기장에서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많이 배웠다. 두산 선수들이 자기만의 루틴도 많고 배울 게 많았다.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느꼈다. 남들이 ‘어깨 좋다’, ‘수비 좋다’고 했는데 내가 못 하는 것이었다. 다들 가진 게 많고 야구를 대하는 태도도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잔류군 내려가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야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생각이 많았다. 김석연 코치님이 초심을 생각하라고 하셨다. 어렸을 때 야구했던 것과 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초심으로 간절하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심을 다진 그는 박찬호가 KIA에서 사용했던 번호를 달고 ‘1번 박정우’로 새로 시작한다.

박정우는 “가장 친했던 형이고 의지했던 형이다. 번호를 받아서 잘하면 형이 ‘박정우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자력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채우려는 마음가짐이다. 육박하는 것도 예상했고 1번은 너무 큰 번호이지만 형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한다. 기다려주시면 1번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형이다. 두산 가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하고 할 때는 못 하면 좋겠다(웃음). 찬호 형이 친 공은 모두 잡아내겠다”고 ‘1번’ 선수로의 각오를 언급했다.

지난해 박정우는 그라운드의 간절함을 느꼈다. 후배들의 경험을 쌓는 모습을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도 했다.

박정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라운드에서 끝내야 한다는 걸 느꼈다. 후배들이 잘하는 것 보면 좋는데 같이 있으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으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사고를 안 했으면 더 좋은 게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도 많이 했다”며 “멘탈이 약해서 악플 등에 휘둘리기도 했는데 즐기면서 하겠다. 3시간 앉아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즐겨야 한다. 고영민 코치님이 ‘필승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즐기면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라도 먹을 만큼 먹었고, 10년 차인데 아직 보여준 게 없다. 우승 멤버인데 내가 잘해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얹은 것이다.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올릴 것 일단 있다. 즐기면서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아쉬웠던 지난 시즌을 뒤로하고 KIA 박정우가 1번을 달고 새 출발한다. 일본 아미미 캠프에서 타격 훈련을 하는 박정우. <KIA 타이거즈 제공>



손흥민·이강인·김민재

AFC ‘올해의 남자팀’ 선정

손흥민(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국제축구연맹(IFFHS)이 선정한 2025년 아시아 축구선수 베스트11로 뽑혔다. <사진>

IFFHS는 27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포함한 ‘202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남자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IFFHS는 세계 베스트11 격인 ‘월드 팀’뿐만 아니라 대륙별로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올해의 팀을 꾸려 공개하고 있다.

‘2025년 AFC 남자팀’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뽑혔다.

손흥민은 최정방 공격수에 자리했다.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 김민재는 수비수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AFC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김민재도 2022년부터 4년 연속 뽑혔고, 이강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 베스트11로 우뚝 섰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AFC 팀에 뽑혔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선수는 3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